

2024. 4. 17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

청년정책반장 강선미 02-2133-6575

청년협력팀장 박규완 02-2133-6587

쪽수 : 3쪽

담당자 최현정 02-2133-6598

오세훈표 청년정책, 서울권대학생협의회 손잡고 '청년에 더 가까이'

- 서울시, 4.16.(화) 서울권 13개 대학 협의회와 청년정책 확산·발전위한 협력 약속
- 서대협 네트워크 활용,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·정보 집중 전달... 정책 체감도↑
- 시 “협약 통해 대학생 청년과 점점 넓어져... 서대협과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”

-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보다 폭넓게 알리기 위해 서울권역 13개 대학 협의회와 손을 맞잡는다. 시는 대학생 협의회 네트워크를 활용, 청년이 ‘정책을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일’이 없도록 진로 탐색, 미래 설계 등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전한다는 계획이다.
- 서울시는 서울권대학생협의회(이하 ‘서대협’)과 4.16.(화) 14시 서울시청(6층 영상회의실)에서 서울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확산·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- 업무협약식에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과 김채수 서대협 의장이 참석한다.

- 서울권역 13개 대학 총학생회장이 모여 발족한 ‘서대협’은 단일 대학 총학생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학생회 간 연대·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해 ’23년 10월 구성됐다.

※ 서대협 참여대학: 고려대, 광운대, 동양미래대, 배화여대, 서경대, 서울과학기술대, 서일대, 세종대, 숭실대, 송의여대, 한국폴리텍대학(강서,정수캠퍼스), 한양여대

-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필요한 청년정책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정책 참여도와 체감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. 시는 올해 57개 사업에 약 8천7백억 원을 투입, 청년의 삶을 다각도로 지원하게 된다.
- 큰 호응을 얻고 있는 ‘청년인생설계학교’, 올해 첫선을 보이는 ‘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’와 ‘청년 해외 원정대’ 등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.
- 앞으로 대학 축제 등 계기성 행사·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시는 대학생과의 접점을 넓혀나갈 방침이다.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‘청년행복 팝업스토어’가 더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.
- ‘청년행복 팝업스토어’는 시 청년정책과 청년 간 접점 확대를 위해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정책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. 지난해 청년 유동 인구가 많거나 서울청년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운영한 결과 큰 호응을 얻었다.

- 시는 청년의 현실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대협과 주기적인 소통·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단순히 ‘정책 수혜 대상’을 넘어 능동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, 미래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도 지원한다.
- 실제로 서대협 일부 구성원은 서울시 대표 청년 참여 채널인 ‘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’에서 기존 정책을 살펴보고,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.
-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“서대협과의 업무협약은 대학생 청년들과의 접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, 앞으로 서로 윈윈(Win Win)하는 파트너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”며 “대학생 청년들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는 데 서울시 청년정책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